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1년 4월 23일(금) 조간
배포일시	2021년 4월 22일(목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담당자	김지연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83, jik51@kdi.re.kr)

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

김지연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

본고는 2021년 상반기 『KDI 경제전망』에 수록될 예정입니다.

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

연구위원 김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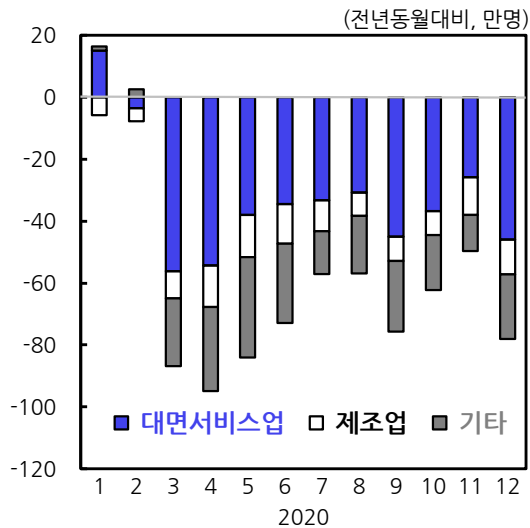
1. 문제제기

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산업별, 종사상 지위별,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적인 고용 충격이 발생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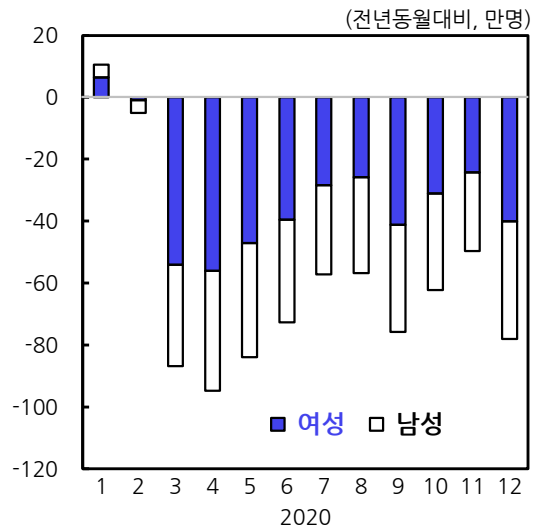
- 산업별로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,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·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남.
- 여성과 남성 간에도 고용충격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 여성 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.

- 위기 초기인 2020년 3월에 핵심노동연령(25~54세)의 여성취업자 수(전년동월대비 54.1만명 감소)는 남성취업자 수(32.7만명 감소)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.

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

성별 취업자 수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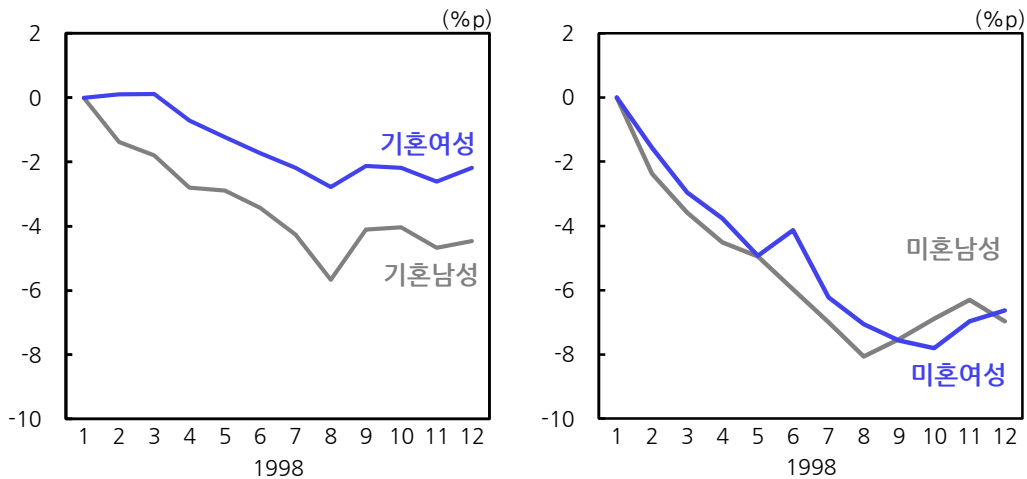
주: 1) 대면서비스업은 교육, 숙박·음식점, 보건업·사회복지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뜻함.
2) 핵심노동연령(25~54세)의 취업자 수 증감임.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■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과거의 경제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, 이는 기혼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주로 기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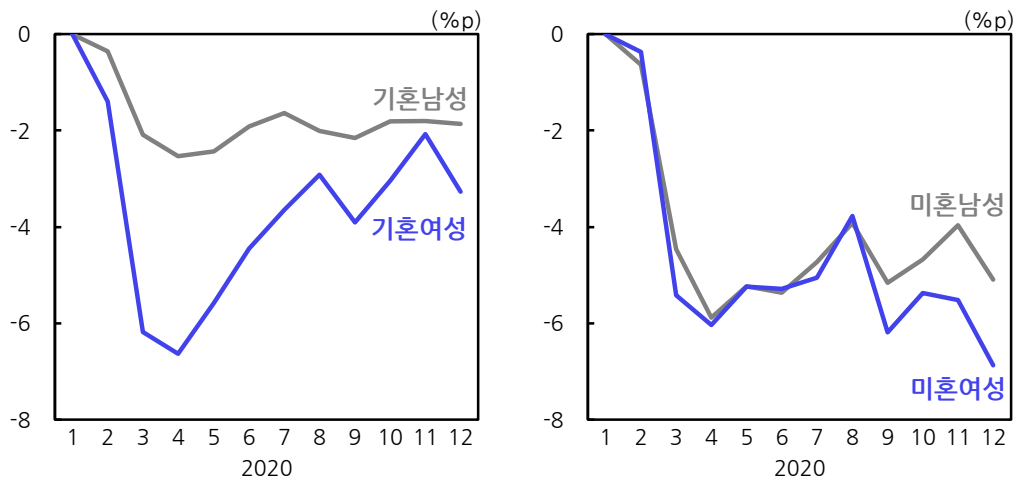
● 위기 국면에서 미혼 여성과 남성 간 고용충격의 격차는 미미한 반면, IMF 외환위기에서는 기혼남성에,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기혼여성에 상대적으로 고용충격이 집중됨.

혼인상태별 · 성별 고용률 변동

IMF 외환위기



코로나19 위기



주: 핵심노동연령(25~54세)을 대상으로, 연도효과와 계절효과를 통제한 연초 대비 고용률 변동을 나타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■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고용충격이 여성에 집중된 원인을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.

● 노동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기혼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.

2. 이질적인 고용충격의 요인

-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노동 수요와 공급 측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.
- (노동수요 측 요인)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아 노동수요가 축소된 산업에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비중이 상이할 경우, 성별 고용격차가 발생함.
 - 코로나19 충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은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아,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.
 -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컸던 상위 3개 업종(교육, 숙박·음식점업, 보건업·사회복지 서비스업)의 경우 위기 직전인 2020년 1월 기준 여성취업자의 비중(38%)은 남성취업자(13%)를 크게 상회함.

산업별 코로나19 고용충격과 취업자 비중

(% , %p)

	고용률 ('20년 1월)	고용률 등락 ('20년 3월)	여성취업자 비중	남성취업자 비중
전 업종	74.7	-4.52	100	100
교육 서비스업	5.5	-1.70	12	4
숙박 및 음식점업	5.4	-0.65	10	6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6.2	-0.44	16	3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	1.4	-0.28	2	2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3.3	-0.21	5	4
도매 및 소매업	10.4	-0.21	15	13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3.2	-0.20	4	4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4.1	-0.20	5	6
제조업	14.2	-0.16	13	23
운수 및 창고업	3.7	-0.11	2	7
건설업	5.5	-0.08	2	11
금융 및 보험업	2.7	-0.08	5	3
정보통신업	3.2	-0.08	3	5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2.8	0.05	3	4
기타	3.1	-0.17	3	5

주: 1) 산업별 고용률은 각 산업 종사자 수를 25~54세 인구로 나누어서 구함.
 2) 산업별 고용률 등락은 연도효과와 계절성이 제거된 연초 대비 증감(%p)임.
 3)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각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■ (노동공급 측 요인) 보육시설 운영 중단과 학교 폐쇄로 인해 가정 내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.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2020년 1학기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며, 학기 시작 이후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 원격수업이 병행하여 실시됨.

- 가정 내 돌봄과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
- 통계청의 「2019년 생활시간조사」 결과에 따르면,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구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(1시간 14분)보다 아내(5시간 12분)가 많았으며,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(3시간 7분)가 남편(54분)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.

코로나로 인한 학사일정 변화

	2020											2021			
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	
유치원	휴원			등원-원격 병행, 방과후과정(돌봄) 탄력적 운영		휴원 및 원격수업		등원-원격 병행		휴원, 원격수업			등원		
어린이집															
초등학교	개학 연기	온라인 개학	등교와 원격수업 병행				전면 원격수업 (고3 제외), 여름방학 (학교장 재량)		등교와 원격수업 병행		전면 원격 수업	겨울 방학	봄방학 (학교장 재량) 및 원격등교 병행		등교
중학교															
고등학교															
정책지원 (긴급돌봄)	유치원, 유아, 초등학생 긴급돌봄 실시		긴급돌봄 종료.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												
코로나 유형	1차 대유행					2차 대유행 (수도권)				3차 대유행 (전국)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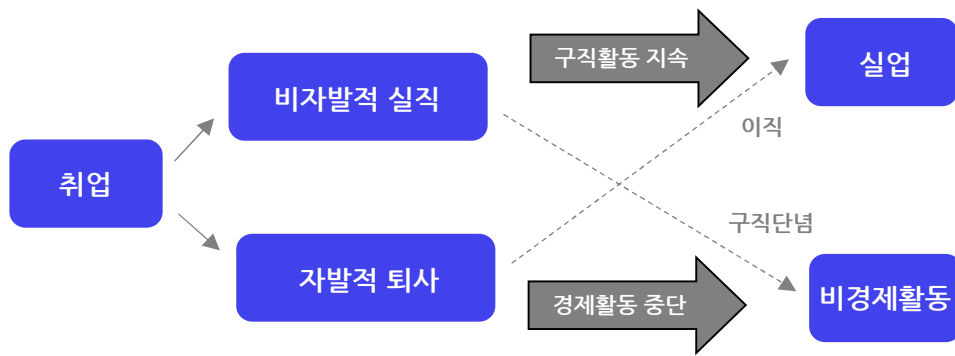
주: 수도권 기준. 지역별 휴원 및 개학 일정이 상이함.
 자료: 교육부, 서울시교육청, 경기도교육청, 질병관리청 보도자료.

3.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에 대한 요인 분석

■ 취업자가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성별 고용격차의 요인을 식별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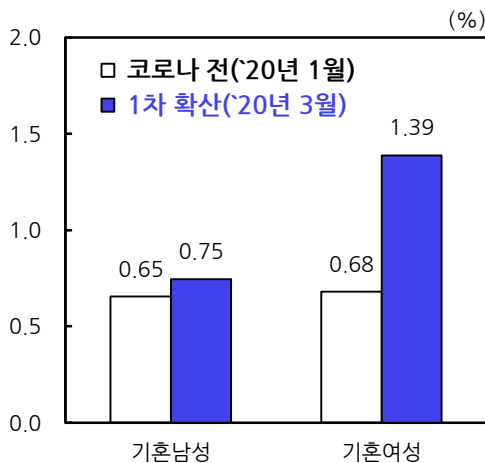
- 실업은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로 노동수요 충격에 주로 반영하는 반면, 비경제활동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노동공급 충격도 반영됨.

노동시장 이행 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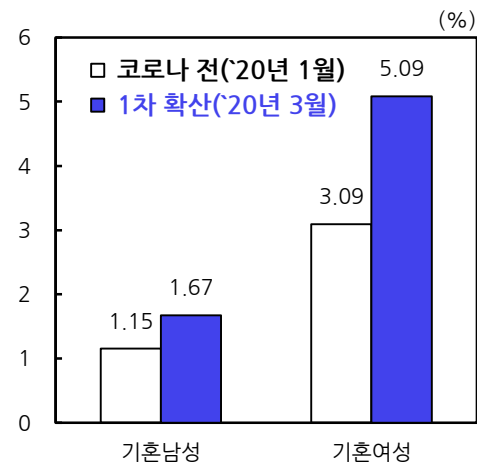


■ 코로나 1차 확산 당시 기혼여성 취업자가 기혼남성보다 실직할 확률과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(그림 참조)한 것은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에 노동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모두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함.

취업 → 실업 이행확률



취업 → 비경제활동 이행확률



주: '취업-실업(비경제활동) 이행확률'은 취업자가 한 달 내에 실업(비경제활동) 상태가 될 확률을 의미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실직연월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.

■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이 각각 노동 수요와 공급 측 요인으로 설명되는 정도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,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업종효과를 분리함.

● 성별 격차가 대면서비스업의 높은 여성종사자 비중으로 인해 발생한다면, 업종효과를 통제할 경우 성별 이행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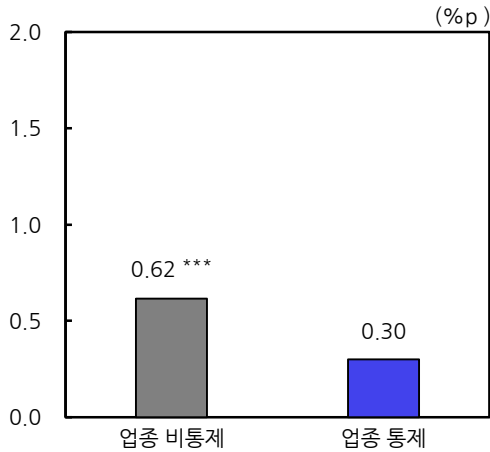
■ 분석 결과,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성별 격차는 업종효과로 대부분 설명되어 노동 수요가 주요인인 반면,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은 업종효과로 설명되는 부분이 1/3 정도에 불과하여 노동공급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.

● (취업 → 실업 이행확률) 업종 통제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0.6%p 높았으나, 업종 효과를 통제한 경우 성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,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직 확률이 남녀 간 업종의 차이에서 대부분 기인함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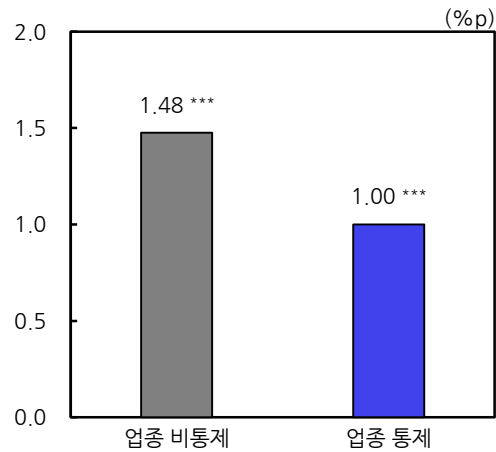
● (취업 → 비경제활동 이행확률) 업종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.0%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, 이는 남녀 간 업종의 차이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

● 업종, 직종, 종사상 지위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경우에도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0.7%p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‘취업 → 실업 이행확률’의 성별 격차와 업종효과



‘취업 → 비경제활동 이행확률’의 성별 격차와 업종효과



주: 1) 성별 격차는 여성 노동시장 이행확률 증감에서 남성 노동시장 이행확률 증감을 뺀 값임.
 2) 노동시장 이행확률의 증감은 연초 대비 1차 확산 당시(3월)의 증감임.
 3) 업종을 통제한 경우는 업종 고정효과와 업종별 코로나19 충격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임.
 4) 통계적 유의수준: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■ 노동수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별 격차가 학교 폐쇄로 인한 가정 내 자녀돌봄의 증가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분석을 수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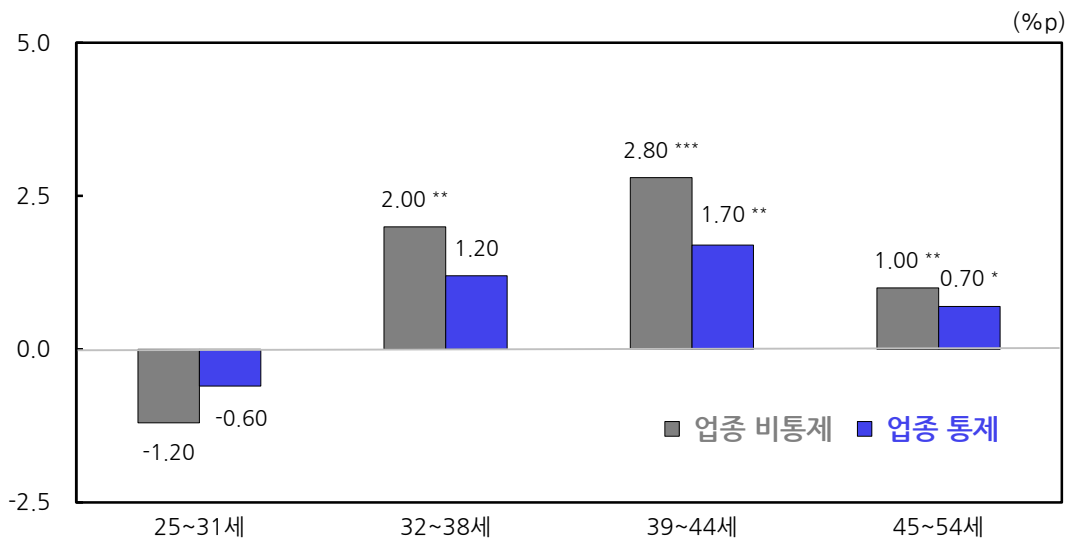
● 자녀유무와 자녀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확률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해당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, 「인구동향조사」(통계청, 2010~19)의 평균 출산연령(32세)에 기반하여 자녀유무와 자녀연령을 추산함.

- 31세 이하(자녀 없음), 32~38세(영유아 자녀), 39~44세(초등학생 자녀), 45세 이상(중학생 이상 자녀)로 가정함.

■ 분석 결과, 39~44세(초등학생 자녀) 집단에서 노동공급 충격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
- 39~44세 여성의 '취업 → 비경제활동 이행확률'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 학교 폐쇄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시사
- 이러한 결과는 자녀연령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선행연구(Collins *et al.*, 2021)와도 일치함.

연령별 '취업 → 비경제활동 이행확률'의 성별 격차



주: 1) 성별 격차는 여성 노동시장 이행확률 증감에서 남성 노동시장 이행확률 증감을 뺀 값임.
 2) 노동시장 이행확률의 증감은 연초 대비 1차 확산 당시의 증감임.
 3) 업종을 통제한 경우는 업종 고정효과와 업종별 코로나19 충격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임.
 4) 통계적 유의수준: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4. 결론 및 정책방향

■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였으며, 자녀돌봄 부담 가중 등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제한되면서 과거 위기와 달리 고용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됨.

-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모두 증가하며 여성의 고용이 크게 위축됨.
- 기혼여성의 상대적인 실업 증가는 여성의 대면서비스업 취업비중이 높은 데 따른 노동수요 요인에 주로 기인한 반면, 비경제활동의 증가는 학교 폐쇄로 인한 자녀돌봄 부담 증가를 비롯한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.
 - 비경제활동의 성별 격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.

■ 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된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수행될 필요

- 여성의 이른 경력단절은 영구적인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도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자녀돌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.
 - 특히 초등학교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 여성의 노동공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지원정책이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

■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노동수요 충격을 크게 받은 부문의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지원도 병행될 필요

- 코로나19의 일시적 충격으로 실직한 경제주체들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
-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경제구조 전환이 예상되는바, 실직자들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이동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